인 사 말

2026년 병오년(丙午年), 40년 역사를 딛고 재도약하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하 상 도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수석부회장/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지난 2025년 을사년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회 전반이 크게 흔들린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맞이한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불과 빛, 그리고 활력을 상징하는 말의 해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식품산업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안심을 이끄는 식품안전 씽크탱크로서 본 학회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학회는 소비자의 높은 관심 속에 있는 '식품안전'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의 학술 공동체입니다. 1986년 창립 이래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학술대회와 산업전시회 개최, 전문 학술지 및 정보 · 정책지 발간을 통해 최신 식품안전 지식의 생성과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2026년은 식품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대체식품과 배양식품,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 법 · 제도와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 역시 과학적 소통과 합리적 기준 설정을 통해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첫째, 과학적 위해성 평가와 데이터 기반 정책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둘째, 산업 · 학계 · 정부를 잇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주도하며,
셋째,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소통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안전 전문가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회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식품안전을 과학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를 통해 폭넓은 교류와 네트워킹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학회의 발전과 우리나라 식품안전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학회와 함께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